

물품 제조 혼재 사업 통합발주 사유서

1. 사업명: '26년 온라인 사이버교육체계 교체 사업

2. 예산액: 11.98억원

3. 물품제조 혼재 사업 통합발주 사유

가. 물품·용역·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·가분성 검토

- 본 사업은 사이버교육체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각 목적물(가상화 실습환경 및 콘텐츠, 스튜디오 환경 구성 등)이 개별 독립적으로 계약될 경우 해당 목적물의 개발과 설치에 있어 상호 연계성 유지를 위한 전문기술 적용이 불가함.
- 모든 목적물이 기 구축된 사이버 훈련체계와의 연동 운용 및 학교 교육적용에 대한 적시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각 유형별 목적물에 대한 독립과 가분이 불가능함.

나.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

- 계약 목적물들은 개발SW, 콘텐츠, 다양한 상용SW와 가상화서버 등 이기종 HW 장비 효과적인 설계, 구축을 위해 통합발주 되어야만 체계적인 일정관리, 위험관리, 품질관리 등이 가능하며, 완전한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통제 및 검수 등의 관리가 용이함.

다.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

- 검수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업체 간의 제품성능 및 하자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고 군과 업체, 업체와 업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.(특정업체의 제품 문제로 검수 불가 및 납품 일정에 문제 발생시 불필요한 분쟁 유발 예상)
- 상기 계약목적물은 통합발주가 되어야 목적물간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설계, 구축,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자 발생시 책임의 대상이 명확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하자보수가 가능함.

육군정보통신학교 사이버/CAI교육단 사이버방호교육대대장 중령 박성우